

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매우 간략하게 그린 지도그림이지만, 경복궁이 폐허로 남겨져 있고, 경희궁이라는 이름 대신 경덕궁으로 표기된 것을 보건대,<sup>02</sup> 17~18세기의 도시구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양도〉에 표현된 또 다른 주요 도시시설은 궁궐과 한양도성을 이어주고 있는 시전행랑이다. 승례문에서 종각으로 그리고 육조거리에서 흥인지문을 잇는 대로를 따라 시전행랑이 쫓혀져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시전행랑으로 끝나는 황토현에서 좌우로 관아의 이름이 적힌 육조거리로 이어져서 광화문을 정점으로 마무리된다. 시전행랑으로 둘러싸인 대로는 승례문과 흥인지문, 그리고 광화문과 돈화문 및 흥화문을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도시건축이다.

이와 같이 4산의 능선을 따라 건설된 한양도성은 백악과 응봉, 그리고 인왕을 배경으로 건설된 궁궐과 상호 연관된다. 그리고 한양도성의 4대문과 4소문이 궁궐의 대문과 시전행랑 및 육조거리로 연결되면서 입체적인 도시경관이 형성된다. 지형의 윤곽을 기반으로 순응하면서 구축된 한양의 도시경관은 동아시아의 다른 수도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sup>03</sup>

260여 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있던 경복궁이 1867년 중건되면서 한양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공간이 다시 구축되었다. 이제 육조거리의 정점에 광화문이 놓이고 그 너머로 백악의 능선이 성큼 다가선 듯 채워지게 되었다. 이는 조선의 도읍 한양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이르기까지 항상 나라를 대표해 온 ‘육조대로~경복궁~백악’으로 이어지는<sup>04</sup> 한양의 가장 상징적인 도시경관이다.

## 2) 대한제국기의 근대적 변동

### (1) 국내외 정세변화와 도시공간

1896년 일본의 낭인들에 의하여 조선의 국모(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참람한